『악학궤범(樂學軌範)』 도식화의 ‘둥근깃형 포류(袍類)’ 연구

고 윤 정 · 조 우 현⁺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석사수료 ·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Study on the ‘Round Collar *Po*(袍類)’ Illustrations of 『*Akhak-gwebeom*(樂學軌範)』

Yoon Jung Ko · Woo Hyun Cho⁺

M.A. Candidate, Dept. of Fashion Design, Sungkyunkwan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Sungkyunkwan University⁺

(received date: 2014. 10. 28, revised date: 2014. 12. 9, accepted date: 2015. 5. 15)

ABSTRACT

The subject of study is about the illustrations of the round collar *Po*(袍類) in the *Akhak-gwebeom*(樂學軌範) which was published in 1493. These illustrations are painted records of what musicians and dancers in the palace were wearing during performances. While each illustration of the *Po* is similar in that they all have round collars, each has a different name *Sam*(衫), *Ui*(衣), *Dallyeong*(團領) and formative characteristics, and these features were analyzed in the study. *Sam* refers to the *Gongbok*(公服) as it has long and big sized sleeves, *Ui* is the word used to represent the basic unit of outerwear, and *Dallyeong* is believed to refer to the *Sibok*(時服) and *Sangbok*(常服). In the formative aspects, *Sam*'s auxiliary sleeve is one of the ways wearing the sleeve of innerwear shown outward and it's assumed to have been produced for visually matching the formal look as well as the convenience free to use of hands. The *Mu* of *Dan-ui*(丹衣) is less than the number of the excavated artifacts, it produced in a relatively simplified form. Also, illustration of *Dallyeong* corresponds to the artifacts and configuration of the 15th to 16th centuries, the costume culture of that time seems to be reflected specifically. While *Hyungbae*(胸背) used in the form of rectangles and circles such as petals, it tried to represent the country at the official event by borrowing the upper class in the costume that musicians and dancers wear, also showed the rank and social status symbolically by having the differences in the shape and pattern. While the costume culture at the time is reflected, it can be found that the objective of raising the country's dignity is implied by transforming the detailed structure for the practicality, borrowing the costume elements of the high social status and transformed them.

Key words: *Akhak-gwebeom*(악학궤범), *Dallyeong*(단령), illustration(도식화), Round collar *Po*(둥근깃형 포류), *Sam*(삼), *Ui*(의)

I. 서론

등근깃형 포류(袍類)는 曲領, 上領, 圓領, 盤領, 團領 등의 명칭으로 불리던 겉옷류이다. 기마유목민족인 선비족(鮮卑族)의 복식에서 기원하여(Ko, 1990) 중국에서는 隋代부터 明代까지 착용하였다. 한국에서는 이미 예(濊)에서 남녀 모두 曲領을 입었고 고구려와 발해의 벽화, 신라의 토용에서도 깃이 등근 포(袍)를 착용한 것이 확인되며(Ryu, 1998), 남국신라시기 진덕여왕 2년(648)부터 고려를 거쳐 조선 국말까지는 관복(官服)으로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등근깃형 포류는 지배층의 공식적인 표의(表衣)로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즉 명칭, 역사, 형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Cho, 1986; Ko, 1979; Lim, 1984), 착용시대와 신분제에 따른 제도 분석(Choi, 2007; Kweon & Lee, 1999; Lee, 2005; Na, 2012; Shin & Park, 2007; Song, 2002), 국내·외 등근깃형 포류 고찰 및 비교(Kim, 1980; Kim, 1991; Kim, 1998; Moon, 1987; Moon, 2004), 봉제방법(E. Lee, 1998; Jeong, 1984; Jin, 2006) 등 다양한 연구 성과가 보인다. 현재 학계에서는 등근깃 자체의 형태를 이르는 명칭과 등근깃이 부착된 관복을 의미하는 고유명사로 ‘團領’이라는 단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페백레복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조선 성종 24년(1493) 제작된 『악학궤범(樂學軌範)』에는 당시의 복식을 살펴볼 수 있는 도식화가 기록되어 있다. 『악학궤범』은 9권(卷) 3책(冊)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권8과 권9에 총 72건 78점의 복식 도식화가 수록 되어있다. 그 중 등근깃형 포류는 9건 13점으로 綠綃衫, 緋鸞衫, 紅綠紬衣, 藍紬衣, 衣, 丹衣, 黑團領 등 다양한 명칭들로 보이며 출토유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구조상의 특징이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등근깃형 포류 도식화별로 다르게 사용된 명칭과 세부구조에 주목하여 각각의 명칭이 사용된 기준을 제시하고 형태적 특징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 『악학궤범』의 등근깃형 포류 도식화에 대하여 기록된 명칭 중 의복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된 衫, 衣, 團領의 세 가지로 분류하여 명칭과 구조적인 특징을 분석하였고, 구체

적인 구조 및 당시의 복식문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동시대의 문헌자료, 회화자료 및 출토유물 등을 참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악학궤범』 도식화에 나타난 등근깃형 포류의 특징과 의미를 밝힘과 동시에 앞으로 이어질 심도있는 연구와 복식문화컨텐츠 활용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악학궤범』의 복식 도식화 기록

조선은 유교를 기본이념으로 개국한 나라로, 유교 국가에서는 예악(禮樂)으로 백성을 교화하여 다스리는 덕치(德治)를 이상향으로 생각하였다(J. S. Lee, 1998). ‘禮’는 사회를 지배하는 신분적 질서체계이고 ‘樂’은 사회를 융합하는 심미적 세계로서(Han, 2012), 결국 국가의 음악으로 신분질서의 정당성을 관철시켜 나라를 통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나라의 통치를 위해 필수적인 수단인 악(樂)에 대한 질서를 정비하는 것이 건국초의 주요한 업무 중 하나였다. 건국 이후 세종대에 이르러 악서를 찬집하고 악기와 악보법을 책으로 엮는 등¹⁾ 조선만의 음악이 정리되기 시작하였는데(Lee, 1981),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는 악인(樂人)과 무인(舞人)의 복식개정도 함께 이루어졌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성종대에 국가의례에 사용되는 음악에 관한 이론과 실제 실행모습을 담은 『악학궤범』을 제작하면서 72건 78점의 복식 도식화를 함께 기록하여 조선의 예악사상에 복식이 하나의 중요한 요소였음을 나타내었다. 『악학궤범』의 복식 도식화는 명칭과 함께 착용자, 착용상황, 사용소재, 색 등의 정보와 도식화에 직접적으로 기록된 치수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기록을 상세하게 남긴다는 것은 내용을 누구나 인지하기 쉽게 하여 후대에 그 제도가 유실되지 않도록 유지하고자하는 목적을 내포한다. 따라서 『악학궤범』은 조선 전시대에 걸쳐

1) *Sejong-sillok*, 27, February 24, 1425(the 7th year).
“請文臣一員加定本學令, 撰集樂書, 且考鄉, 唐, 雅樂律調, 其樂器譜法, 並令圖書成冊, 一秩入內, 又於曹及奉常寺, 樂學慣習都監, 雅樂署, 各藏一秩.”

음악절차와 그에 따른 복식 마련의 기준이 되었고, 제작목적의 구현이 현재까지 진행되어 복식의 명칭연구와 형태제현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2. 등근깃형 포류(袍類)의 착용범위

등근깃형 포류(袍類)는 조선 건국초기까지 서민계층도 두루 입는 의복이었으나 세종 원년(1397)부터 서민의 착용이 금지되었다.²⁾ 이 시기부터 등근깃형 포류(袍類)가 관복의 역할로 한정되어 입혀졌으며, 복식의 금제(禁制)를 통하여 신분질서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나라의 기틀이 세워짐에 따라 신분의 높고 낮음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복식착用に 더욱 엄격한 기준이 생겼고, 특히 등근깃형 포류는 양반의 전유물이 되어 서민과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장악기관인 장악원(掌樂院)에 소속된 궁중음악 연주자와 무용수는 예외적인 계급이었다. 장악원의 악사(樂師), 악생(樂生), 악공(樂工) 그리고 관현맹인(管絃盲人)은 잡직(雜職)이지만 악사는 정6품 전악(典樂), 악생(樂生)과 악공(樂工)은 중6품 부전악(副典樂)까지 오를 수 있었고, 그 아래로 전율(典律), 전음(典音), 전성(典聲)의 직책을 받을 수 있었다.³⁾ 이 외에도 가동(歌童), 무동(舞童), 여기(女妓), 동기(童妓)가 소속되어 있었는데, 악사와 악생은 양인(良人)출신이었으나 그 외에는 모두 천인(賤人)출신이었으므로⁴⁾ 사회에서 높은 위치의 신분은 아니었다. 세종대의 복색상징에 대한 기록을 보면, 악공은 천인출신이므로 일이 있어 그들이 왕과 가까이 있는 경우에만 등근깃형 포류를 착용하도록 하였다.⁵⁾ 따라서 등근깃형 포류는 원칙상 천인에게서는 허용되지 않는 의복으로, 입을 수 있는 신분에 제한이

있었지만 궁중의 악인과 무인은 여러 행사에서 음악과 춤을 보이는 중요한 상황에 노출되고 그들이 갖춘 차림새가 곧 국가의 규모와 발전정도를 나타내기도 하므로 국가권위에 어울리는 복식을 갖추기 위하여 제한적이지만 등근깃형 포류의 착용이 허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Ⅲ. 『악학궤범』도식화의 등근깃형 포류 분석

『악학궤범』에는 9건 13점의 등근깃형 포류(袍類)도식화가 나타나 있고, 그 중 전체적인 형태는 같으나 색 또는 흉배 등 세부구조가 다른 경우를 고려하면 총 27종류가 궁중의례에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도식화들은 모두 등근깃의 표의이지만 綠綃衫, 緋鸞衫, 紅綠紬衣, 藍紬衣, 衣, 丹衣, 黑團領 등 다양한 명칭으로 기록되었고, 묘주의 생몰시기가 『악학궤범』이 발간된 1493년 전후인 임진왜란(壬辰倭亂, 1592) 이전의 출토유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소매모양, 무모양, 흉배가 발견되는 등 특이점을 가지고 있다.

등근깃형 포류의 명칭은 衫, 衣, 團領 등 의복을 의미하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그 앞에 색과 소재 등 부가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수식어들을 붙여 하나의 의복명을 이루었다. 이것으로 보아 의복을 나타내는 명칭인 衫, 衣, 團領이 도식화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구체적인 고찰을 위하여 9건의 도식화를 衫, 衣, 團領의 세 종류로 분류하였다. 또한 분류된 명칭에 속하는 등근깃형 포류의 형태, 종류, 착용자, 착용상황과 직급과 역할에 따라 다르게 착용하였던 관(冠) 등 『악학궤범』에 제시된 기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등근깃형 포류의 명칭사용에 대한 정의와 조형적인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1. 衫(衫)

‘衫’으로 분류되는 등근깃형 포류(袍類)는 綠綃衫, 紅綃衫, 緋鸞衫, 青鸞衫, 皂紬衫, 紅紬衫으로 총 6종류이고, 青鸞衫은 세종대에는 사용되었지만 『악학궤

2) *Sejong-sillok*, 3, January 9, 1419(the 1st year).

“命禁近黃色衣及庶人團領衣.”

3) *Gyeongguk-daejeon*, 1, 1485, *Ijeon Japjik Jangakwon* (吏典 雜職 掌樂院).

4) *Gyeongguk-daejeon*, 3, 1485, *Yejeon Asokak Seonsang* (禮典 雅俗樂 選上).

5) *Sejong-sillok*, 22, October 29, 1448(the 30th year).

“...吏典當着團領, 其賤人若樂工, 別監, 小親侍等因事近前外, 不許穿着.”

〈Table 1〉 Round collar *Po* of *Akhak-gwebeom* that are classified as *Sam*

Sam(衫)						
Illustration	Type	Fabric	Rank Badge	Hat	Wearer	Performances
<i>Hongcho-sam</i> (紅綃衫)	<i>Cho</i> (綃)	.	<i>Bokdu</i> (幘頭)	<i>Aksa</i> (樂師)	<i>Abu Jeryeak</i> (雅部 祭禮樂)
	<i>Ganggongbok</i> (絳公服)					<i>Sokbu Jeryeak, Johoeak, Yeonhyangak</i> (俗部 祭禮樂, 朝會樂, 宴享樂)
	<i>Nokcho-sam</i> (綠綃衫)
<i>Biran-sam</i> (緋鸞衫)	<i>Ju</i> (紬)	<i>Nanbong</i> (鸞鳳)	<i>Gaechaek</i> (介幘)	<i>Aksaeng</i> (樂生)	<i>Abu Jeryeak</i> (雅部 祭禮樂)
					<i>Akgong</i> (樂工)	<i>Sokbu Jeryeak</i> (俗部 祭禮樂)
				<i>Mubyeon</i> (武弁)	<i>Aksaeng</i> (樂生)	<i>Mumu</i> (武舞)
				<i>Jinhyeongwan</i> (進賢冠)		<i>Munmu</i> (文舞)
	<i>Joju-sam</i> (皂紬衫)			<i>Pibyeon</i> (皮弁)		<i>Mumu</i> (武舞)
	<i>Hongju-sam</i> (紅紬衫)		<i>Sohwa</i> (小花)	<i>Hwahwabokdu</i> (畫花幘頭)	<i>Akgong</i> (樂工)	<i>Johoeak</i> (朝會樂)

(*Akhak-gwebeom*, 1493)

법』이 제작된 성종대에는 사용되지 않았다.⁶⁾ 도식화는 두 가지 형태로 제시되는데 廣袖形으로 수구 끝에 작은 끝동이 덧붙여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아악(雅樂) 악사는 홍색의 초(綃)로 만든 紅綃衫을 입고, 속악(俗樂) 악사는 녹색의 초로 만든 綠綃衫을 입어 포의 색에 차이를 두었다.⁷⁾ 緋鸞衫, 皂紬衫, 紅紬衫은 주(紬)로 만드는데 緋鸞衫과 皂紬衫은 앞, 뒤, 양 어깨에 난봉문(鸞鳳紋)의 흉배를 달았고, 紅紬衫은 앞과 뒤에만 소화(小花)흉배가 있다. 아악의 악생들

은 연주, 노래, 문무(文舞), 무무(武舞)에서 緋鸞衫과 皂紬衫을 입었고 맡은 역할에 따라 개책(介幘), 무번(武弁), 진현관(進賢冠), 피번(皮弁) 등 서로 다른 관을 착용하였다. 악공들은 종묘(宗廟)와 영녕전(永寧殿)의 제례(祭禮)에서는 緋鸞衫을 입고 개책을 썼고, 각종 하례(賀禮)행사에서는 紅紬衫에 화화복두(畫花幘頭)를 착용하는 등 상황과 사용되는 음악에 따라 다른 복장을 하였다<Table 1>. 표의 내용은 『악학궤범』의 권2, 권8, 권9를 참고한 것이며, 권2에는 세종조의 복식과 성종조의 복식이 함께 제시되어 있으므로 『악학궤범』 제작 당시에 사용되었던 성종조의 복식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6) *Akhak-gwebeom*, 2, 1493, *Aak-jinseol-doseol Munmu* (雅樂陳設圖說 文舞).

“樂生五十並進賢冠青鸞衫 時用皂紬衣”

7) *Sejong-sillok*, 58, December 19, 1432(the 12th year).

“樂學啓 雅樂署典樂冠服, 與典樂署典樂冠服無等, 未便, 請副典樂冠服, 用絳公服, 幘頭, 緋白大帶, 金銅革帶, 烏皮履, 從之.”

〈Table 2〉 Illustrations of the *Akhak-gwebeom* with *Sam* used in the name

Name	<i>Nokcho-sam</i>	<i>Biran-sam</i>	<i>Han-sam</i>	<i>Heukjang-sam</i>
Illustration
Wearer	<i>Aksa</i>	<i>Aksaeng · Akgong</i>	<i>Cheoyong</i>	<i>Yeogi</i>
lining			unlined	lined
Fabric	<i>Cho</i> (絹)	<i>Ju</i> (紬)	<i>Cho</i> (絹)	upper: <i>Sa</i> (紗) · <i>Ra</i> (羅) lining: <i>Cho</i> (絹)

(Akhak-gwebeom, 1493)

1) 공복(公服) 개념의 삼(衫)

『악학궤범』에서는 4점의 복식 도식화에 衫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 그 중 2점이 등근깃형 포류(袍類)인 綠絹衫과 緋鸞衫이고, 나머지는 처용(處容)이 입는 汗衫과 여기가 입는 黑長衫이다. Kim & Kang (2003)에 따르면 衫은 의복을 통칭하거나 홀옷을 지칭하는 단어이다. 그러나 〈Table 2〉의 내용을 보면, 汗衫은 몸에 직접 닿게 입어 땀을 흡수하는 옷으로 거의 홀옷으로 봉제되었지만(Park & Cho, 1997) 여기의 黑長衫은 일부분 일 수 있으나 견어 올린 소매부분은 겹으로 제작되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⁸⁾ 명칭에 衫이 들어가는 의복이 모두 홀옷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었으며, 綠絹衫, 緋鸞衫과 黑長衫이 길이가 긴 겹옷의 일종이지만 소매의 넓이에서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등근깃형 포류 도식화에 사용된 衫은 의복을 통칭하거나 홀옷을 지칭하는 이외에 다른 의미의 단어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綠絹衫의 도식화 설명 중 ‘綠絹衫과 제도가 같은 紅絹衫은 강공복(絳公服)이다.’⁹⁾고 하였고, 『세종실

록(世宗實錄)』에는 ‘악사가 비공복(緋公服)을 입는다.’¹⁰⁾고 기록되었다. 또한 『고려사(高麗史)』에서도 공복(公服)을 紫衫, 丹衫, 緋衫, 綠衫 등¹¹⁾ 衫을 겹미어로 사용하여 설명하였으므로 ‘衫’은 ‘공복’ 개념의 단어로 추측된다. 함께 착용하는 관도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공복에는 복두(幘頭)를 착용한다.’¹²⁾고 하였는데, 악사가 입는 綠絹衫과 紅絹衫에는 복두를, 악공이 입는 紅紬衫에는 화화복두를 착용하였으므로 공복이라 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다.

즉 衫이라는 단어는 의복과 홀옷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악학궤범』에서는 관복의 한 종류인 공복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된 것이라 추측된다.

2) 좁은 끝동 부착의 소매형

衫으로 분류된 두 도식화는 공통적으로 넓은 소매인데 수구 끝에 좁은 끝동이 있는 모습이다. 이 끝동은 당시대의 등근깃형 포류(袍類) 출토유물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용도에 대한 정의도 불분

8) *Akhak-gwbeom*, 9, 1493, *Yeogi-boksik Heukjang-sam* (女妓服飾 黑長衫).

“長衫以黑羅或紗爲之捲袖”; “(lined sleeves in illustration) 藍絹”

9) *Akhak-gwbeom*, 9, 1493, *Gwanbok-doseol Nokcho-sam* (冠服圖說 綠絹衫).

“衫以綠絹縫造 紅絹衫制同紅絹衫即絳公服也”

10) *Sejong-sillok*, 59, March 22, 1433(the 15th year).

“...樂師, 今之典樂, 緋公服...”

11) *Goryeo-sa*, 72, 1451, *Yeobok Gwanbok Gongbok*(輿服 官服 公服).

“...元尹以上紫衫中壇卿以上丹衫都航卿以上緋衫小主簿以上綠衫.”

12) *Gyeonguk-daejeon*, 3, 1485, *Yejeon Ujang*(禮典 儀章).

“...公服幘頭...”

〈Fig. 1〉 Round Collar *Po* in Song Dynasty (Huang, Chen & Huang, 2011-a, p. 182)

〈Fig. 2〉 *Sanak* Mural Paintings in a Tumulus in Song Dynasty (Ryu, 2010, p. 173)

〈Fig. 3〉 *Sam* in Ming Dynasty (Corpus of Chinese Fabric, Embroidery and Finery Editorial Board (Ed.), 2004, p. 228)

〈Fig. 4〉 *Biran-sam* for Mumu Historical Researched by Cho, W. H. (National Gukak Center, n.d.)

명하다. 이러한 의문의 해결을 위해서는 두 의복의 사용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綠綃衫과 緋鸞衫은 모두 세종대에 제정된 것으로 宋의 제도를 참고하였다.¹³⁾ 宋의 회화에서는 원령대 수포(圓領大袖袍)의 수구 밖으로 내의(內衣)로 보이는 소매부리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Fig. 1), 벽화에 그려진 악대의 모습에서도 동일한 모습이 발견된다(Fig. 2). 따라서 내의의 소매를 밖으로 보이게 내어 입는 방법은 당시 둥근깃형 포류 착용시 사용된 착장법 중 하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明代의 복식 중 여자衫의 수구에 소매와 별도로 끝동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은 화문(花紋)을 직금(織金)한 단(段)으로 제작되어 착용자와 소재에 차이가 있지만, 『악학궤범』에 나타난衫의 끝동과 유사한 형태로 보인다. 이는 장식적인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손목 아래로 펼쳐진 넓은 소매자락이 활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고 손의 사용을 편리하게 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 세종 초기에는 제악(祭樂) 악공의 복식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안에 입은 더러운 옷이 보여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복식제도를 개정해야 할 만큼 열악한 상황이었다.¹⁴⁾ 또한 그들은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출 때 손에 의물(儀物)을 들어야 했기 때문에 손의 사용도 자유로워야 했다. 따라서 이러한 악인 복식에 대한 수요와 宋과 明의 복식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악인과 무인이 착용하는 공복의 수구 끝에 부착된 끝동은 내의를 갖추어 입는 것과 같은 효과와 손의 쓰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이와 같은 봉제방법으로 재현된 緋鸞衫이 국립국악원에서 공연된 '세종조 회례연'¹⁵⁾에서 사용되어, 『악학궤범』에 나타난 형태와 자연스러운 동작이 가능한 구조에 대한 고증이 이루어진 바 있다(Fig. 4).

13) *Sejong-sillok*, 59, March 22, 1433(the 15th year).

"...工人所着之服, 唐用朱襖衣朱連, 而制度未詳, 宋用緋鸞衫, 而體制可考. 我朝五升布衣, 醜惡而體非衫制, 乞依宋朝廟樂之制, 改用鸞衫, 以九升紬爲之...古制祭樂, 有樂正, 樂師, 運譜人之服, 我朝無之, 乞依唐, 宋之制, 各造二件, 樂正紫公服, 樂師緋公服, 運譜人綠公服..."

14) *Sejong-sillok*, 47, February 19, 1430(the 12th year).
"...且只作外衣一件, 而無內著之服, 裁縫短窄, 製作無據, 袂不及手, 齊不及踝, 袖袂不一, 或博或狹, 至於穿着, 不掩常服..."

15) *Taepyeongjak*: Sound of the Heaven, Music of King Sejong, premiered in December 18 to 19, 2008, National Gukak Center *Yeak-dang*, Seoul, Republic of Korea, Historical Researched of Costume by Cho, W. H.

〈Fig. 5〉 *Ranjo Hyungbae of Biran-sam*
(*Akhak-gwebeom*, 1493)

〈Fig. 6〉 *Ran*
(*Yingzao-fashi*, 1103)

〈Fig. 7〉 Pattern of *Pyeongyang Lee's Dansam*
(Gyeonggi Provincial Museum
(Ed.), 2014, p. 12)

3) 난봉문(鸞鳳紋) 흥배의 사용

緋鸞衫의 큰 특징은 앞, 뒤, 좌우 어깨에 난봉(鸞鳳)을 흥배처럼 그렸다는 것이다(Fig. 5). 난봉의 형상은 宋代의 『영조법식(營造法式)』에 나타나 있는데, 벼슬이 없고 톱니모양을 한 다섯 가닥의 꼬리가 있는 모습이다(Sim, 2006)〈Fig. 6〉. 난봉에 대하여 『설문(說文)』에서는 ‘난봉은 봉황의 일종으로 적색오채(赤色五彩)를 띠고 소리는 오음(五音)을 내는 새’라 하여(Sim, 2006) 음악소리를 상징하는 문양이라 할 수 있다.

『악학궤범』이 제작되었을 당시 흥배는 문무관 중에서도 당상관만이 상복(常服)에 다는 것이었다.¹⁶⁾ 또한 조문(鳥紋)이 문관의 흥배에 사용되었으나 1품은 공작, 2품은 운안, 3품은 백한이었고, 오히려 내외 명부의 예복에서 난봉문(鸞鳳紋)이 사용된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Fig. 7). 즉 흥배와 난봉문은 양인 또는 천인 출신이며 잡직이었던 악인과 무인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던 제도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악생과 악공이 착용하는 의복에 흥배를 다는 것은 상위 계급의 복식 문화를 차용한 것이며, 공식적인 행사에서 국가의 위의(威儀)를 나타내기 위해 허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난봉을 그린 것은 착용자가 음악을 연주와 춤으로 구현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리의 조화로움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의(衣)

‘衣’로 분류되는 등근깃형 포류(袍類)는 紅紬衣, 綠紬衣, 藍紬衣, 처용의 五色衣, 무동의 五色衣, 동기의 丹衣와 여기의 丹衣, 藍衣, 綠衣로 총 17종류가 해당되는데, 여기의 藍衣와 綠衣는 성종대에 사용되지 않았다.¹⁷⁾ 紅綠紬衣는 앞서 언급한 속악을 사용하는 제례 중 장소가 문소전(文昭殿), 연은전(延恩殿), 소경전(昭敬殿)일 경우에 입는다. 모란을 그린 흥배를 달고, 홍말액(紅抹額)을 들고 꽃을 꽂은 오관(烏冠)을 쓰는 것이 특징이다. 紅綠紬衣를 제외한 다른 등근깃형 포류는 모두 무용복으로 소매통이 좁은 窄袖形이다. 이러한 형태는 삼국시대에서 고려에 이르는 기간에서 서역에서 유입된 문화의 일종이 정착된 것인데(Kim, 2002), 사상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조선 이전의 문화가 성종대까지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흑(黑), 백(白), 황(黃), 청(靑), 적(赤)의 오방색 외에도 녹(綠), 자(紫), 남(藍), 도홍(桃紅) 등의 다양한 색과 사(紗), 라(羅), 단(段) 등의 소재를 사용하였고, 만화(蔓花), 절화(折花), 금화(金花)와 같은 화문을 그리기도 하여 화려하고 장식적인 면이 강조되었다(Table 3).

1) 표의(表衣) 개념의 의(衣)

‘衣’는 상의를 지칭하는 개념의 단어로 의복을 착

16) *Gyeongguk-daejeon*, 3, 1485, *Yejeon Uijang*(禮典 儀章).

17) *Akhak-gwebeom*, 9, 1493, *Yeogi-boksik Dan-ui*(女妓服飾 丹衣).
“觀天庭賀聖明呈才丹粧制同用紅綠藍羅裏用綃色從表今不用”

〈Table 3〉 Round collar *Po* of *Akhak-gwebeom* that are classified as *Ui*

U(衣)							
Illustration	Type	Fabric	Rank Badge	Hat	Wearer	Performances
Hongju-ui(紅紬衣)	Ju (紬)	Mokdan (牧丹)	Ogwan (烏冠)	Akgong (樂工)	Sokbu Jeryeak (俗部 祭禮樂)	
	Nokju-ui(綠紬衣)
Namju-ui(藍紬衣)		.	Jinhyeongwan (進賢冠)			Botaepyeongjimu (保太平之舞)
				Pibyeon (皮弁)			Jeongdaeeopjimu (正大業之舞)
Cheong-ui(青衣)	Dan (緞), Cho (絹)	.	Cheoyong Samo (處容 紗帽)	Cheoyong (處容)	Cheoyongmu (處容舞)
Hwang-ui(黃衣)
Hong-ui(紅衣)
Baek-ui(白衣)						
	Heuk-ui(黑衣)
Hwang-ui(黃衣)	Dan (緞), Cho (絹), Mapo (麻布)	Manhwa (蔓花), Unmun (雲紋)	Dongyeon hwagwan (銅蓮花冠), Buyongggwan (芙蓉冠)	Mudong (舞童)	Yeonhyangak (宴享樂)
Nok-ui(綠衣)
Ja-ui(紫衣)
Nam-ui(藍衣)
Dohong-ui(桃紅衣)
Dan-ui (丹衣)	Sa (紗), Ra (羅), Dan (段), Cho (絹), Jeoma (苧布)	.	Japsik (雜飾)	Yeogi (女妓)	Yeonhyangak (宴享樂)
Dan-ui (丹衣)	.	.	Japsik (雜飾)	Donggi (童妓)	Yeonhwadaemu (蓮花臺舞)

(*Akhak-gwebeom*, 1493)

〈Table 4〉 Example of part of a complete dress showing the outerwear as *Ui*

Source	Name of paragraph	Wearer	A complete dress
<i>Akhak-gwebeom</i> (1493)	<i>Yeonhwadae-boksik</i>	<i>Donggi</i>	<i>Haprip</i> (蛤笠), <i>Hwanghong-jangmi</i> (黃紅薔薇), <i>Yuso</i> (流蘇), <i>Gyeolsin</i> (結紳), <i>Dan-ui</i> (丹衣), <i>Sang</i> (裳), <i>Malgun</i> (襪裙), <i>Dae</i> (帶)
	<i>Cheoyong-gwanbok</i>	<i>Cheoyong</i>	<i>Samo</i> (紗帽), <i>Ui</i> (衣), <i>Cheonui</i> (天衣), <i>Gilgyeong</i> (吉慶), <i>Sang</i> (裳), <i>Gun</i> (裙), <i>Han-sam</i> (汗衫), <i>Dae</i> (帶), <i>Hye</i> (鞋)
	<i>Mudong-gwanbok</i>	<i>Mudong</i>	<i>Dongyeonhwagwan</i> (銅蓮花冠), <i>Buyongggwan</i> (芙蓉冠), <i>Hwa</i> (靴), <i>Ui</i> (衣), <i>Jungdan</i> (中單), <i>Sang</i> (裳)
	<i>Yeogi-boksik</i>	<i>Yeogi</i>	<i>Jam</i> (箴), <i>Yuso</i> (流蘇), <i>Cha</i> (釵), <i>Daeyo</i> (臺腰), <i>Suhwa</i> (首花), <i>Dan-ui</i> (丹衣), <i>Sang</i> (裳), <i>Dae</i> (帶), <i>Heukjang-sam</i> (黑長衫), <i>Hyea</i> (鞋兒), <i>Malgun</i> (襪裙), <i>Nam-jeokgori</i> (藍赤古里)
<i>Gukjo-orye-seorye</i> (1474)	<i>Myeonbok</i>	King	<i>Gyu</i> (圭), <i>Gwan</i> (冠), <i>Ui</i> (衣), <i>Sang</i> (裳), <i>Daedae</i> (大帶), <i>Jungdan</i> (中單), <i>Pae</i> (佩), <i>Su</i> (綬), <i>Bangsimgokryeong</i> (方心曲領), <i>Pyeseui</i> (蔽膝), <i>Mal</i> (襪), <i>Seok</i> (鳥)
	<i>Wonryugwanbok</i>	King	<i>Gyu</i> (圭), <i>Gwan</i> (冠), <i>Ui</i> (衣), <i>Sang</i> (裳), <i>Daedae</i> (大帶), <i>Jungdan</i> (中單), <i>Pae</i> (佩), <i>Su</i> (綬), <i>Bangsimgokryeong</i> (方心曲領), <i>Pyeseui</i> (蔽膝), <i>Mal</i> (襪), <i>Seok</i> (鳥)
	<i>Myeonbok</i>	Crown prince	<i>Gyu</i> (圭), <i>Gwan</i> (冠), <i>Ui</i> (衣), <i>Sang</i> (裳), <i>Daedae</i> (大帶), <i>Jungdan</i> (中單), <i>Pae</i> (佩), <i>Su</i> (綬), <i>Bangsimgokryeong</i> (方心曲領), <i>Pyeseui</i> (蔽膝), <i>Mal</i> (襪), <i>Seok</i> (鳥)
	<i>Gwanbok</i>	The civil and military officers	<i>Ho</i> (笏), <i>Gwan</i> (冠), <i>Ui</i> (衣), <i>Sang</i> (裳), <i>Daedae</i> (大帶), <i>Jungdan</i> (中單), <i>Pae</i> (佩), <i>Su</i> (綬), <i>Bangsimgokryeong</i> (方心曲領), <i>Pyeseui</i> (蔽膝), <i>Mal</i> (襪), <i>Ri</i> (履)

용한 모습 전체를 나타내기도 한다(Park & Cho, 1997). 『악학궤범』에서는 ‘연화대복식도설(蓮花臺服飾圖說)’, ‘처용관복(處容冠服)’, ‘무동관복(舞童冠服)’, ‘여기복식(女妓服飾)’ 등 복식일습을 하나의 단락으로 기록하는 부분에서 하위단위인 겹에 입는 등근깃형 포류를 衣로 표기하였다. 또한 등근깃형 포류(袍類)는 아니지만,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에서 왕, 왕세자, 문무관의 겹옷을 표현한 直領形 도식화에도 衣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Table 4). 이러한 기록들로 보아 당시 衣는 깃의 형태와 무관하게 표의의 기본단위를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같은 衣에 대한 정의는 『악학궤범』에 나타나는 복식명칭의 혼용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악학궤범』의 권2에는 악기진설의 종류에 따른 복식착용 내용이 설명되어 있고, 권9에는 권2에서 설명되었던 복식이 도식화와 세부내용으로 나타났다. 이 중 문무와 무무에서 악생이 입는 겹옷은 권2에서 皂紬衣, 권9에서는 皂紬衫으로 기록되었고,¹⁸⁾ 문소전

친행 전상악(文昭殿親行殿上樂)에서 악공이 입는 겹옷은 권2에서 紅紬衫과 綠紬衫으로, 권9에서는 紅綠紬衣로 나타나있어¹⁹⁾ 명칭이 혼동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착용상황과 착용자가 동일하므로, 결국 皂紬衣와 皂紬衫 그리고 紅紬衫·綠紬衫과 紅綠紬衣는 같은 의복이라 할 수 있다(Table 5). 따라서 착용자가 같고 착용상황이 같은 동일한 등근깃형 포류가

18) *Akhak-gwebeom*, 2, 1493, *Aak-jinseol-doseol Munmu* (雅樂陳設圖說 文舞·武舞):

“...時用 皂紬衣...”

Akhak-gwebeom, 9, 1493, *Gwanbok-doseol Biran-sam* (冠服圖說 緋鸞衫).

“...皂紬雅樂文武舞及執藝工人所着...皂紬衫及樂工朝賀所着紅紬衫制同...”

19) *Akhak-gwebeom*, 2, 1493, *Sokak-jinseol-doseol Mun-sojeon-chinhaeng-jeonsangak* (俗樂陳設圖說 文昭殿親行殿上樂):

“樂工三十九並烏冠紅抹額首花牧丹胸背紅綠紬衫 殿庭及迎恩殿昭敬殿冠服並做比”

Akhak-gwebeom, 9, 1493, *Gwanbok-doseol Hong-rokju-ui* (冠服圖說 紅綠紬衣).

“文昭殿差備工人所着迎恩昭敬殿同”

〈Table 5〉 Share the name of the dress from *Akhak-gwebeom*

Performances	Wearer	Volume 2	Volume 9
<i>Munmu · Mumu</i>	<i>Aksaeng</i>	<i>Joju-ui</i>	<i>Joju-sam</i>
<i>Munsojeon-chinhaeng-jeonsangak</i>	<i>Akgong</i>	<i>Hongju-sam · Nokju-sam</i>	<i>Hongrokju-ui</i>

(*Akhak-gwebeom*, 1493)

서로 다른 명칭으로 기록된 현상은 衣라는 단어가 겹옷의 기본단위로 쓰이는 단어였기 때문에 그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용되어 가능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2) 단의(丹衣)의 다중안주름형 무 부착

衣로 분류된 둥근깃형 포류(袍類) 도식화에는 다양한 무모양이 나타나지만 무 안쪽의 재봉선이나 트임의 표시 등은 생략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구조 파악이 쉽지 않다. 紅綠紬衣는 삼각형의 무를 따로 재단하여 길에 붙인 것으로 보이나 두루마기처럼 옆선이 모두 막힌 것인지 또는 트여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고, 소매와 무가 한 쪽으로 연결되어 보이는 藍紬衣도 마찬가지다. 처용과 무동의 衣는 무의 상부가 접힌 모습이 뒤에서 서술할 黑團領과 유사한 모양이지만 무와 길사이의 선이 없고 무가 몸판 부분에서 이어지는 모습으로 완전하게 같은 형태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착용자가 여자인 여기와 동기가 착용한 丹衣의 무는 형태 추측이 가능한데, 서로 다른 색의 소재를 이어 붙여 무의 상부를 하나로 모아 맞주름을 만들어 옆선에 고정시킨 모양이다. 이는 동시대 출토 유물 중 묘주가 여자인 둥근깃형 포류의 옆트임 안으로 1개 또는 여러 개의 주름을 잡아 정리한 다중안주름형 무(Choi, 2007)와 같은 형태로, 아래쪽이 아코디언 주름처럼 펼쳐지는 나이프 플리즈(Knife Pleats)이다. 그러나 출토유물의 묘주와 여기, 동기는 신분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동일한 구성의 복식을 입을 수 없도록 구성상의 차이점을 두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악학궤범』이 제작된 1493년 전후의 다중안주름형 무모양을 한 여자의 둥근깃형 포류를 丹衣의 무형태를 비교하여 구체적인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여자의 둥근깃형 포류 출토유물

은 임진왜란 전후 시기의 것이 대부분인데, 현재 학계에 발표된 유물 중 묘주의 생몰년대와 지위가 명확하게 나타나있는 유물 4점을 선정하였다. 丹衣는 동기가 입은 것과 여기가 입은 것이 있으나 출토유물의 묘주가 모두 성인이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여기의 丹衣만을 비교대상으로 정하였다.

Lee (2003)에 따르면 『악학궤범』의 복식 도식화에 사용된 포백척(布帛尺)은 1尺이 46.66cm로, 6~8분인 丹衣의 무 주름너비는 약 2.8~3.7cm이다(Fig. 12). 출토유물의 다중안주름형 무의 주름너비는 4~11cm로 丹衣의 주름너비보다 넓게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맞주름의 수는 직급에 따라 일정한 변화를 보인다. 출토유물은 종친 또는 문무관의 부인이 착용하였던 예복으로 종1품 군부인(郡夫人) 평양이씨(平壤李氏)의 것은 4개(Fig. 8), 종3품 숙부인(淑夫人) 연안김씨(延安金氏)의 것은 3개(Fig. 9), 6품의 의인박씨(宜人朴氏)와 평산신씨(平山申氏)의 것은 2개의 맞주름이 확인된다(Fig. 10), (Fig. 11). 반면 천인인 여기가 착용한 丹衣는 주름이 1개이다. 따라서 다중안주름형의 무는 당시 여자의 복식에 주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고, 조사대상의 수가 한정적이지만 착용자의 직위가 높을수록 주름의 너비가 넓고 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분에 따라 의복을 풍성해 보이게 하는 무에 차이를 둔 것으로 보인다(〈Table 6〉).

즉 여기와 동기는 출토유물의 묘주들과는 신분차이가 큰 천인이지만 丹衣는 공식적인 공연에서 착용되었으므로 당시 여자 예복의 구조를 차용하였고, 무 주름의 너비와 수에 차이를 두어 신분이 높은 부인의 예복보다 비교적 간략한 형태로 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Table 6〉 Comparison between *Dan-ui* and the pleated *Mu* of female round collar *Po* excavated artifacts

Tomb (Era)	Position	Excavated artifacts	Width of pleated <i>Mu</i> (cm)
			Number of pleated <i>Mu</i>
<i>Pyeongyang Lee</i> (1502-1579)	<i>Jong</i> 1st <i>pum</i> (<i>Gunbuin</i>)	<p>〈Fig. 8〉 <i>Dansam</i> (Gyeonggi Provincial Museum (Ed.), 2014, pp. 10-11)</p>	4-8
			4
<i>Yeonan Kim</i> (1590th)	<i>Jeong</i> 3rd <i>pum</i> (<i>Sukbuin</i>)	<p>〈Fig. 9〉 <i>Dallyeong</i> (Gyeonggi Provincial Museum (Ed.), 2005, pp. 276-277)</p>	8
			3
<i>Uiin Park</i> (Mid & Late 16th)	<i>Jeong</i> 6th <i>pum</i> (<i>Uiin</i>)	<p>〈Fig. 10〉 <i>Dallyeong</i> (Gyeonggi Provincial Museum (Ed.), 2006, pp. 212-213)</p>	7-11
			2
<i>Pyeongsan Sin</i> (Late 16th)	<i>Jong</i> 6th <i>pum</i> (<i>Uiin</i>)	<p>〈Fig. 11〉 <i>Dallyeong</i> (Mungyongsaejae Museum (Ed.), 2005, pp. 14-15)</p>	7.8
			2
<i>Yeogi</i> (1493)	<i>Cheonin</i>	<p>〈Fig. 12〉 <i>Dan-ui</i> (<i>Akhak-gwebeom</i>, 1493)</p>	6-8 <i>bun</i> (2.8-3.7cm)
			1

〈Fig. 13〉
Moran Hyungbae
(Akhak-gwebeom,
1493)

〈Fig. 14〉
Sangbok in Ming
Dynasty
(Huang, Chen &
Huang, 2011-b,
p. 41)

〈Fig. 15〉
Lee U(1469-1517)
(Lee & Lee,
2003, p. 77)

〈Fig. 16〉
Manhwa Hyungbae
(Akhak-gwebeom,
1493)

〈Fig. 17〉
Unmun Hyungbae
(Akhak-gwebeom,
1493)

〈Fig. 18〉
Gwamun
(Yingzao-fashi,
1103)

3) 화문(花紋)과 운문(雲紋) 흥배 사용

衣로 분류된 등근깃형 포류(袍類) 도식화에는 두 가지 양식의 흥배가 사용되었다. 明의 제도를 참고한 紅綠紬衣²⁰⁾의 흥배는 사각형으로 안에 모란을 그렸다²¹⁾〈Fig. 13〉. 明의 회화자료 중 관복에 붙여진 흥배도 紅綠紬衣와 같이 사각형이며〈Fig. 14〉, 조선시대 관복의 흥배 역시 같은 형태로 그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Fig. 15〉. 唐의 제도를 참고한 무동의 衣에 달린 흥배는 테두리가 8개의 등근 꽃잎으로 이루어진 모양으로 앞면의 흥배에는 만화문(蔓花紋)을, 뒷

면의 흥배에는 운문(雲紋)을 넣었다²²⁾〈Fig. 16〉, 〈Fig. 17〉. 이와 유사한 형태가 『영조법식』에서 과문(科紋)이라는 이름으로 확인되는데(Sim, 2006)〈Fig. 18〉, 唐의 영향을 받은 宋에서도 같은 양식이 유행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흥배라는 하나의 매개에서 서로 다른 국가에서 받아들인 여러 가지 형태로 동시대에 나타나는 것은 당시의 복식에 여러 문화가 융합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편 흥배에 나타나는 문양은 문무관의 흥배에 사용된 날짐승, 길짐승과 같은 동물문양이 아닌 모란, 만화, 구름과 같이 식물 또는 자연현상의 문양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천인출신인 악공과 무동이 신분과 품계를 벗어나 문무관처럼 의복에 흥배를 부착했던 것은 공식적인 행사에서 국가의 위의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추측되며, 흥배의 모양과 문양에는 차이를 두어 계급 간의 구분을 두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

20) *Sejong-sillok*, 56, April 24, 1432(the 40th year).

“詳定所啓 中國朝儀堂下俗部樂工之衣, 用靑黑紅三色, 織圓紋內紅牡丹綠葉. 其圓文邊兒靑衣則白連珠, 紅衣則黃連珠, 皆窄袖衣. 又裏着之服, 靑衣則紅錦裳, 紅衣則靑錦裳. 今本朝樂工之衣, 大體倣中國例, 外着之服, 用靑紅兩色, 裏着服色, 各從所宜. 其衫制及畫花之制, 仍舊造作. 下禮曹.”

21) *Akhak-gwebeom*, 9, 1493, *Gwanbok-doseol Hong-rokju-wi*(冠服圖說 紅綠紬衣).

“...畫牡丹於胸背綠衣則紅胸背紅衣則綠胸背.”

22) *Sejong-sillok*, 53, August 24, 1431(the 13 year).

“大護軍朴堧 據唐制雲錦, 花錦之狀, 以綵絹畫會禮男樂之舞童冠服以進, 上曰可依舞童之額以備.”

〈Table 7〉 Round collar *Po* of *Akhak-gwebeom* that are classified as *Dallyeong*

<i>Dallyeong</i> (團領)					
Illustration	Type	Fabric	Hat	Wearer	Performances
<i>Heuk-dallyeong</i> (黑團領)	<i>Myeonpo</i> (綿布)	<i>Samo</i> (紗帽)	<i>Aksa</i> (樂師)	<i>Yeonhyangak</i> (宴享樂)
	<i>Tohong-dallyeong</i> (土紅團領)	.	<i>Nokjudugeon</i> (綠紬頭巾)	<i>Akgong</i> (樂工)	
	<i>Apdurok-dallyeong</i> (鴨頭綠團領)	<i>Myeonpo</i> (綿布)		<i>Gwanhyeon maengin</i> (管絃盲人)	
	<i>Nokju-dallyeong</i> (綠紬團領)	<i>Ju</i> (紬)	<i>Jajudugeon</i> (紫紬頭巾)	<i>Gadong</i> (歌童)	

(Akhak-gwebeom, 1493)

라서 문무관의 흉배와 달리 악인(樂人)과 무인(舞人)의 흉배에 그려진 화문과 운문은 그들의 신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목적도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단령(團領)

‘團領’은 배래가 완만한 곡선을 이루는 窄袖形에 상부가 삼각형인 무가 있는 모습으로, 형태는 같으나 색이 다른 黑團領, 土紅團領, 鴨頭綠團領, 綠紬團領의 4종류가 있다. 악사, 악공, 관현맹인이 연향(宴享)에서 입었던 黑團領과 鴨頭綠團領은 면포(綿布)로 만들었고, 모화관친열(慕華館親閱)이나 관사(觀射)에서 가동이 입었던 綠紬團領은 주(紬)로 만들었다. 모든 착용자가 같은 형태의 團領을 착용하였으나 관은 다르게 하여 사모(紗帽)는 악사만이 쓸 수 있었다(〈Table 7〉).

1) 시복(時服)과 상복(常服) 개념의 단령(團領)

‘團領’은 明代(1370)에 처음 기록된 명칭으로 문무관의 상복(常服) 차림 중 둥근깃의 포를 지칭하였고, 조선에서는 정종대에 왕이 사모를 쓸 때 입는 의복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된 것을 시작으로 문헌에 나타난다(Moon, 2004). 『악학궤범』에서는 4가지 색의 團領이 나타나는데, 그 중 악사가 착용했던 黑團

領은 시복(時服)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Table 8〉을 보면, 지휘를 맡는 악사는 전정고취(殿庭鼓吹)에서는 시복을 입고 정전예연(正殿禮宴), 사정전 왜야인접견(思政殿倭野人接見), 대사례(大射禮)에서는 사모(紗帽), 품대(品帶 또는 角帶), 黑團領을 입는다고 하였다.²³⁾ 의복을 착용하는 상황은 다르지만 같은 역할을 하는 인물의 복식은 동일할 것으로 보이므로 사모를 쓰고 黑團領에 대(帶)를 두른 차림을 시복이라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시복은 문무관이 입시할 때나 공무를 볼 때 입는 복장인데(Ryu & Kim, 2000), 일반적으로 흉배가 없는 홍색 계통으로 알려져 있어 혼란이 있을 수 있으나 Lee (2005)의 연구에서 『악학궤범』이 제작된 조선 전기의 시복은 의례용 복식으로서 국가에서 규정하는 특정 의례에서만 흑색(아청색)을 입는 것이 원칙이었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그 외 잡색단령(雜色團領)은 평소에 입는 집무복[常服]이었으므로(Lee,

23) *Akhak-gwebeom*, 2, 1493, *Sokak-jinseol-doseol Siyong-jeonjeong-gochwi*(俗樂陳設圖說 時用殿庭鼓吹);

“樂師二一着冠服執拍一着時服協律郎指揮”

Akhak-gwebeom, 2, 1493, *Sokak-jinseol-doseol Jeong-jeon-yecheon-yeogiakgong-baerip*(俗樂陳設圖說 正殿禮宴女妓樂工排立).

“...樂師三一紗帽品帶黑團領協律郎及宴享節次指揮...思政殿倭野人接見樂師二一紗帽品帶黑團領進膳進爵節次指揮...大射禮樂師三一紗帽角帶黑團領協律郎指揮...”

〈Table 8〉 Wearing *Sibok* who takeover the leadership of conducting the conducting musicians' fitment and wearing of the *Sibok*

Performances	Wearer	Role	Dress
<i>Jeonjeong-gochwi</i>	<i>Aksa</i>	Conduct	<i>Sibok</i>
<i>Jeongjeon-yeyeon</i>			<i>Samo, Pumdae, Heuk-dallyeong</i>
<i>Sajeongjeon-waeyainjeopgyeon</i>			<i>Samo, Pumdae, Heuk-dallyeong</i>
<i>Daesarye</i>			<i>Samo, Pumdae, Heuk-dallyeong</i>

2005) 악공, 관현맹인, 가동이 입었던 토홍, 압두록, 녹색 등의 團領은 흑색의 團領보다 격이 낮은 의복이었다. 악공, 관현맹인, 가동은 양인인 악사보다 신분이 낮은 천인이므로 상복에 해당되는 잡색단령을 공연복으로 착용한 것으로 보이며, 악공이 예연에서 黑團領을 착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관은 사모를 쓰지 못하고 녹주두건(綠紬頭巾)을 쓰는 것으로 보아 黑團領에 사모를 갖추는 시복의 차림에는 신분상의 제약이 있었을 것이라 예상된다.

즉 현재 모든 둥근깃형 포류(袍類)를 종합하여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團領'은 『악학궤범』이 제작되었던 당시 窄袖形에 상부가 삼각형으로 접힌 무가 있는 둥근깃형 포류의 의례용 시복과 집무용 상복을 의미하는 단어였다.

2) 15세기 말~16세기 초의 둥근깃형 포류(袍類) 양식

『악학궤범』의 團領은 진동 아래 허리선 정도로 보이는 옆선에 상부가 삼각형인 무가 있는 형태이다. 이 무모양은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조선전기의 대표적인 형태로 제시되며 남자의 둥근깃형 포류(袍類) 출토유물을 설명하는 예시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묘주가 임진왜란 이전에 몰한 출토유물의 남자 둥근깃형 포류의 진동점에서 무의 상부까지 간격인 옆선 길이는 『악학궤범』의 團領과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Table 9〉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인 15세기에서 16세기의 출토유물을 묘주의 생몰시기와 유사형태를 고려하여 15세기,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 16세기의 세 시기로 구분하여 옆선 길이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출토유물은 묘주의 생몰시기가 정확하

게 드러난 것으로 선정하였으며 실측치수는 출토 보고서와 선행연구를 참고하였다. 1493년에 제작된 『악학궤범』의 團領은 정확한 치수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육안으로 진동점과 무의 상부까지의 간격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모습이다. 출토유물에서 『악학궤범』의 團領과 유사한 정도의 간격이 나타나는 시기는 15세기 중반에서 후반에 출생하여 16세기 초에 몰한 변수(邊脩, 1447-1524)〈Fig. 22〉, 김흠조(金欽祖, 1461-1528)〈Fig. 23〉, 고운(高雲, 1470-1530)〈Fig. 24〉, 정온(鄭溫, 1481-1538)〈Fig. 25〉의 4건으로 묘주가 모두 『악학궤범』이 제작된 시기를 겪었던 인물들이다. 그들이 착용하였던 둥근깃형 포류의 옆선 길이는 18~24cm로 무가 진동점에서 상당히 아래로 내려와 있으며 유물의 형태도 『악학궤범』의 團領과 유사하다. 그러나 『악학궤범』이 제작된 이전과 이후의 유물은 옆선의 길이가 짧은데, 1490년에 몰한 송효상(宋效商, 1430-1490)〈Fig. 19〉, 〈Fig. 20〉과 1450년에 몰한 홍계강(洪係江, 1400-1450)〈Fig. 21〉의 것은 간격이 3~5cm로 변수, 김흠조, 고운, 정온의 것과 15~19cm정도 차이가 난다. 또한 16세기 초에 태어나 16세기 중·후반에 몰한 이흠(李欽, 1522-1562)〈Fig. 26〉, 정응두(丁應斗, 1508-1572)〈Fig. 27〉, 이응태(李應台, 1556-1586)〈Fig. 28〉의 것은 6~7.5cm로 옆선 길이가 10cm이하로 나타난다. 즉 15세기 중반까지는 옆선의 길이가 3~5cm정도로 좁았다가 『악학궤범』이 발간된 후 16세기 초에 길이가 20cm에 이를 정도로 길어졌던 것이 16세기 중·후반이 되면서 다시 10cm이하로 좁아지는 현상을 보인다.

이렇듯 『악학궤범』의 團領 도식화와 같이 옆선 길이가 긴 둥근깃형 포류를 입었던 시기는 출토유물 묘주의 생몰시기로 미루어보았을 때 15세기 말부터

〈Table 9〉 Change in the length from the highest point of *Mu* to the *Jindong* point of the 15th~16th centuries male round collar *Po* excavated artifacts

Era	Excavated artifacts			
	Tomb			
	Length from the highest point of <i>Mu</i> to the <i>Jindong</i> point (cm)			
15th
	〈Fig. 19〉 <i>Dallyeong</i> (Daejeon Prehistoric Museum (Ed.), 2009, p. 20)	〈Fig. 20〉 <i>Dallyeong</i> (Daejeon Prehistoric Museum (Ed.), 2009, p. 22)	〈Fig. 21〉 <i>Dallyeong</i> (Park, 1992, p. 240)	
	<i>Song Hyosang</i> (1430-1490)	<i>Song Hyosang</i> (1430-1490)	<i>Hong Gyeongang</i> (1400-1450)	
	4	3	5	
Late 15th ~ Early 16th
	〈Fig. 22〉 <i>Dallyeong</i>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Ed.), 2000, p. 52)	〈Fig. 23〉 <i>Dallyeong</i> (Youngju-si (Ed.), 1998, p. 7)	〈Fig. 24〉 <i>Dallyeong</i> (Gwangju Folk Museum (Ed.), 2000, p. 89)	〈Fig. 25〉 <i>Dallyeong</i> (Dankook Univ (Ed.), 1998, p. 67)
	<i>Byeon Su</i> (1447-1524)	<i>Kim Heumjo</i> (1461-1528)	<i>Ko Un</i> (1470-1530)	<i>Jeong On</i> (1481-1538)
	24	23	22.5	18
16th
	〈Fig. 26〉 <i>Dallyeong</i> (Gyeonggi Provincial Museum (Ed.), 2014, p. 66)	〈Fig. 27〉 <i>Dallyeong</i> (Seoul Museum of History & Dankook Univ. (Ed.), 2006, p. 91)	〈Fig. 28〉 <i>Dallyeong</i> (Andong National Univ. Museum (Ed.), 2000, p. 280)	
	<i>Lee Heum</i> (1522-1562)	<i>Jeong Eungdu</i> (1508-1572)	<i>Lee Eungtae</i> (1556-1586)	
	7.5	6	7	

16세기 초까지 50년 내외이다. 15세기 중반에는 무의 상부가 진동점에 매우 가까운 형태를 하고 있었으며, 16세기 중·후반에도 그 간격이 점차 가까워져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앞선 길이가 시대에 따른 형태적 특징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악학궤범』의 團領 도식화는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의 남자

가 입었던 등근깃형 포류의 형태이며, 조선시대 등근깃형 포류의 시기에 따른 특징을 연구하는데 있어 세부적인 분류를 통한 고찰을 가능하게 하는 기록이라 할 수 있다.

IV. 결론

본 연구의 대상은 1493년 제작된 『악학궤범』 도식화 중 9건 13점으로 나타나는 둥근깃형 포류(袍類)로 궁중의례에서 악인(樂人)과 무인(舞人)들이 공연시 착용하였던 것이다. 각각의 도식화가 모두 깃이 둥글다는 점은 공통되지만 綠綃衫, 緋鸞衫, 紅綠紬衣, 藍紬衣, 衣, 丹衣, 黑團領 등 다양한 명칭과 서로 다른 구조상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에 주목하여 명칭사용에 대한 기준과 조형적인 특징을 분석하였다.

둥근깃형 포류 도식화의 명칭은 점미어로 衫, 衣, 團領 등 의복을 의미하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그 앞에 색과 소재 등 부가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수식어들을 붙여 하나의 의복명을 이루었다. 紅綃衫은 강공복(絳公服), 비공복(緋公服)으로 불렸고, 『고려사』에는 공복(公服)을 紫衫, 丹衫, 緋衫, 綠衫 등으로 표현하였으며, 紅綃衫, 綠綃衫, 紅紬衣는 문무관의 공복과 같이 복두(幘頭)를 착용한 것으로 보아 ‘衫’은 공복 개념의 단어로 추측된다. 衣는 복식일습이 기록된 단락에서 표의인 둥근깃형 포류의 명칭으로 사용되었고, 동시대의 기록인 『국조오례서례』에서도 왕, 왕세자, 문무관이 가장 겉에 입는 直領形 포의 명칭도 동일한 것으로 보아 당시 겉옷의 기본단위를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되었다고 생각된다. 團領의 종류 중 黑團領은 당시 의례에서 입는 시복(時服)이었고, 그 외 토홍, 압두록, 녹색 등 잡색단령(雜色團領)은 평소 집무에 입는 상복(常服)이었으므로 『악학궤범』이 제작된 당시 團領이라는 단어는 시복과 상복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즉 『악학궤범』에 나타난 둥근깃형 포류에는 표의(表衣)와 관복(官服) 개념의 명칭이 붙여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조형적인 측면에서는 소매의 구성, 무의 주름과 위치, 흉배의 모양과 문양 등에서 특징을 발견된다. 衫에 해당되는 둥근깃형 포류의 소매는 좁은 끝동을 부착한 형태로, 시각적으로 격식있는 모습을 갖추며 동시에 손의 사용을 자유롭게 하는 편의성을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추측된다. 여기와 동기가 착용한 丹衣의 무는 서로 다른 색의 소재를 이어 붙여 맞주름을 만들어 옆선에 고정시킨 다중안주름형 무형태이다.

동일한 무형태가 16세기 여자의 둥근깃형 포류에서도 나타나는데, 출토유물 무의 맞주름 수가 계급에 따라 2~4개였던 것과 달리 여기의 丹衣는 1개였고 무의 너비도 더 좁은 것으로 보아, 직위가 높은 부인의 예복보다 비교적 간략한 형태로 제작되어 신분에 따른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團領 도식화는 출토유물과 옆선 길이를 비교하여 본 결과, 『악학궤범』이 제작되어 사용된 15세기 말부터 16세기 초의 양식으로 당시의 복식문화를 매우 구체적으로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 흉배는 사각형 또는 꽃잎과 같은 원형의 모양이 있는데 난봉문(鸞鳳紋), 화문(花紋), 운문(雲紋)이 사용되었다. 당시 흉배는 당상관만이 사용하는 것이었으나 악인과 무인이 착용하는 의복에 흉배를 부착하였던 것은 공식적인 행사에서 국가의 위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모양과 문양을 문무관과 다르게 하여 신분상의 차이를 두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으로 『악학궤범』 도식화의 둥근깃형 포류를 분석한 결과, 명칭에 있어서 상위계급의 복식과 같이 표의와 관복 개념의 단어가 사용되었으나 복식의 흉배, 무, 소매모양 등 세부구조는 변용하여 계급과 신분상의 차이를 드러내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더 많은 자료를 통하여 둥근깃형 포류의 명칭에 대한 고찰과 시대의 흐름에 따른 형태변화의 원인을 밝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본 연구의 결과가 후속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Akhak-gwebeom* [樂學軌範] (1493).
Andong National Univ. Museum, (Ed.) (2000). *The excavation report of the Kosong Yi graves at Chongsang-dong, Andong*. Andong, Republic of Korea: Andong National Univ. Museum.
Cho, O. S. (1986). *A Study on 'dan-ryou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Choi, E. S. (2007). *The official's dallyeong in Joseon dynasty* [조선시대 百官의 團領]. Seoul, Republic of Korea: Minsokwon.
Corpus of Chinese Fabric, Embroidery and Finery Editorial Board, (Ed.) (2004). *Corpus of Chinese*

- fabric, embroidery and finery, Vol 4 historical costumes*, Tianjin, China: Tianjin People's Fine Arts Publishing House.
- Daejeon Prehistoric Museum, (Ed.) (2009). *Traditional costume of Joseon dynasty*, Daejeon, Republic of Korea: Daejeon Prehistoric Museum.
- Dankook Univ. (Ed.) (1998). *Korean Costume, 16*, Seoul, Republic of Korea: Dankook Univ. Seok Juseon Memorial Museum.
- Goryeo-sa [高麗史] (1451).
- Gukjo-orye-seorye [國朝五禮序例] (1474).
- Gwangju Folk Museum, (Ed.) (2000). *Hacheon Ko Un excavated artifact* [霞川 高雲 출토유물], Gwangju, Republic of Korea: Gwangju Folk Museum.
- Gyeonggi Provincial Museum, (Ed.) (2006). *Excavated costumes from Jinju Ryu's common grave* [진주류 씨 합장묘 출토복식], Yongin, Republic of Korea: Gyeonggi Provincial Museum.
- Gyeonggi Provincial Museum, (Ed.) (2005). *Excavated costumes from Yeonan Kim's grave* [연안김씨 묘 출토복식], Yongin, Republic of Korea: Gyeonggi Provincial Museum.
- Gyeonggi Provincial Museum, (Ed.) (2014). *Special trip of prince Seonseong and his mother of Joseon royal family*, Seoul, Republic of Korea: Minsokwon.
- Gyeonguk-daejeon* [經國大典] (1485).
- Han, H. (2012). *Music thought of Joseon dynasty* [조선 시대 악(樂) 사상], Seoul, Republic of Korea: Sonamu.
- Huang, N. F., Chen, J. J., & Huang, G. (2011a). *Seven thousand years of Chinese costumes No. II*, Beijing, China: Tsinghua University Press.
- Huang, N. F., Chen, J. J., & Huang, G. (2011b). *Seven thousand years of Chinese costumes No. III*, Beijing, China: Tsinghua University Press.
- Jin, H. J. (2006). Study on the formation and sewing method of danryeong first term of Josheon dynasty (Master's thesis, Dankuk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Retrieved from <http://lib.dankook.ac.kr/dcollection/jsp/common/DcLoOrgPer.jsp?sltItemId=000000029104>
- Jeong, K. H. (1984). A study on sewing of dallyeoung and changeui,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8, 69-73.
- Kim, E. & Kang, S. (2003). A study of the clothing's culture in Choseon period with the process of the differentiating into clothing's names-focused on the names of unisex cloth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4(4), 149-162.
- Kim, K. (2002). The costume of young girls dancers in yon wha dae moo of Chosun dynas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2(6), 1-13.
- Kim, M. J. (1980). A study of Chinese dallyeou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3, 47-65.
- Kim, M. J. (1991). A study of Japanese dallyeou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17, 71-82.
- Kim, Y. J. (1998). A study on chinese round neckline: in reference to the five hundred thieves to become buddhist monk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36, 97-107.
- Ko, G. L. (1979). The study of dan roun, *The Research Journal*, 14, 113-161.
- Ko, G. L. (1990). *The hats and clothes of Korea* [韓國의 冠服], Seoul, Republic of Korea: Hwaseongsa.
- Kweon, J. & Lee, S. (1999). A Study on sibok in Choson dynasty(1)- centering around sibok of king and pri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48, 71-81.
- Lee, E. (1998). A case study of dan-ryung construction in early 16th century,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6(2), 279-292.
- Lee, E. (2005). Development process of sibok and sangbok for officer in Joseon dynas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5(6), 38-50.
- Lee, G. C. & Lee, M. N. (2003). *A historical figure portrait dictionary* [역사 인물 초상화 대사전], Seoul, Republic of Korea: Hyunamsa.
- Lee, J. (2003). A Study of the pobaekcheok of akhakgwebeom, *Journal of the Natioal Center for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15, 75-94.
- Lee, J. S. (1998). *Joseon dynasty's rituals and court music* [조선조 궁중의례와 음악], Seoul, Republic of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Lee, S. J. (1981). A study of the musicians' costumes in Yi dynasty specialized in master musician · jeona g · agsang and aggo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 83-101.
- Lim, J. Y. (1984). A study on dan-ryo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8, 31-42.
- Moon, K. H. (1987). *A study on comparision of Korea, Chinese dan-ryeong* (Unpublished doctoral dissetation). Busan University, Busan, Republic of Korea.
- Moon, K. (2004). *A study on dress codes and actural samples of "dan-ryung" in the time of Chosun dynasty* (Unpublished doctoral dissetation), Sejong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 Mungyongsaeje Museum, (Ed.) (2005). *Where did she go that wearing gumseondan chima* [금선단 치마 입고 어디 다녀오셨을까], Seoul, Republic of Korea: Minsokwon.
- Na, Y. (2012). *A comparative study on women's danryeong form observed in oryun haengsildo*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 National Gukak Center. (n.d.). *Sound of the Heaven, Music of King Sejong* :[Brochure], Seoul, Republic of Korea.

- Park, J. & Cho, W. (1997). A study on the costumes of ch'oyong dance(1) focus on the structure and chang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1(1), 129-143.
- Park, S. S. (1992). *Study on exhumed clothing of the early Chosun dynas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jong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 Ryu, D. S. (2010). *A pictorial guide to the history of Chinese music*. (S. H. Kim & H. R. Kim, Trans.). Seoul, Republic of Korea: Minsokwon. (Original work published 2008)
- Ryu, H. K. & Kim, M. J. (2000). *Cultural history of Korean costume* [한국복식문화사] (5th ed.). Seoul, Republic of Korea: Kyomunsa.
- Ryu, S. O. (1998). *History of Korean costume* [韓國服飾史]. Seoul, Republic of Korea: Suhaksa.
- Sejong-sillok* [世宗實錄] (1397-1450). Seoul Museum of History & Dankook Univ. Seok Juseon Memorial Museum. (Ed.) (2006). An exhibition of excavated Korean costumes, Seoul, Republic of Korea: Seoul Museum of History & Dankook Univ. Seok Juseon Memorial Museum.
- Sim, Y. O. (2006). *2000 years of Korean textile design*. Seoul, Republic of Korea: I.S.A.T. Publications.
- Song, M. (2002). Study of Joesun dynasty danryoung worn by woma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2(8), 151-160.
- Shin, H. & Park, S. (2007). A study on the actual state of wearing the danryoung of the tongshins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7(10), 99-111.
-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Ed.) (2000). *Exhibition of excavated remains donated by Byeon family*. Seoul, Republic of Korea: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 Yingzao-fashi* [營造法式] (1103).
- Youngju-si. (Ed.) (1998). *Research reports of pankyulsa Kim Heumjo common grave excavated artifact*. Youngju, Republic of Korea: Youngju-si.